

27과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오경연p)

오늘 25과 ‘성막을 세움’ 이라는 내용입니다.

성막과 관련된 것이 이번 주의 내용이고 또 다음 주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성막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성막을 세우기까지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잠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찌니라

1 Jehová habló a Moisés, diciendo:

2 Di a los hijos de Israel que tomen para mí ofrenda; de todo varón que la diere de su voluntad, de corazón, tomaréis mi ofrenda.

9절입니다.

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데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찌니라

9 Conforme a todo lo que yo te muestre, el diseño del tabernáculo, y el diseño de todos sus utensilios, así lo haréis.

여기 말씀에 장막을 지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물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예물을 가져오되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의 것을 받아서 장막을 지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사람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구요.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6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털과
7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8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9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4 Y habló Moisés a toda la congregación de los hijos de Israel, diciendo: Esto es lo que Jehová ha mandado: 5 Tomad de entre vosotros ofrenda para Jehová: todo generoso de corazón la traerá a Jehová; oro, plata, bronce,
6 azul, púrpura, carmesí, lino fino, pelo de cabras,
7 pieles de carneros teñidas de rojo, pieles de tejones, madera de acacia,
8 aceite para el alumbrado, especias para el aceite de la unción y para el incienso aromático,
9 y piedras de ónice y piedras de engaste para el efod y para el pectoral.

20절, 21절.

2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21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20 Y salió toda la congregación de los hijos de Israel de delante de Moisés.
21 Y vino todo varón a quien su corazón estimuló, y todo aquel a quien su espíritu le dio voluntad, con ofrenda a Jehová para la obra del tabernáculo de reunión y para toda su obra, y para las sagradas vestiduras.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29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29 De los hijos de Israel, así hombres como mujeres, todos los que tuvieron corazón voluntario para traer para toda la obra, que Jehová había mandado por medio de Moisés que hiciesen, trajeron ofrenda voluntaria a Jehová.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연구하면서 일 맡길 사람을 세우게 되는 데요.

그 중에 호홀리압과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뽑혀지게 됩니다.

36장 1절이죠.

1 Así, pues, Bezaleel y Aholiab, y todo hombre sabio de corazón a quien Jehová dio sabiduría e inteligencia para saber hacer toda la obra del servicio del santuario, harán todas las cosas que ha mandado Jehová.

1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와 무릇 명하신대로 할 것이니라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36장 3절에 보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왔고 5절에 보면 너무 많이 가져왔고 그 가져오는 것을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도록 중재할 정도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재료가 아주 넉넉했다 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유인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저기 뒤편에 있는데 없으면 가져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예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로 해야 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예물, 즉 금에서부터 놋까지 값비싼 것으로부터 값싼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모두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원하시죠.

제사나 번제보다 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가져왔는데 그 많은 물질, 그 예물을 가져온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 1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 3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 5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 1 Asimismo, hermanos, os hacemos saber la gracia de Dios que se ha dado a las iglesias de Macedonia;
- 2 que en grande prueba de tribulación, la abundancia de su gozo y su profunda pobreza abundaron en riquezas de su generosidad.
- 3 Pues doy testimonio de que con agrado han dado conforme a sus fuerzas, y aun más allá de sus fuerzas,
- 4 pidiéndonos con muchos ruegos que les concediésemos el privilegio de participar en este servicio para los santos.Ro.
- 5 Y no como lo esperábamos, sino que a sí mismos se dieron primeramente al Señor, y luego a nosotros por la voluntad de Dios;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구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물질에 얽매이고, 개인의 욕심에 얽매어 실제적인 삶이 그의 고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따라가는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인식하다면 그는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라는 책 속에 로렌스 형제가 쓴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일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사랑의 크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바치는 물질 혹은 예물의 양, 헌신의 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정말 더 중요할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렸는가. 그 부분이 더욱 중요할 겁니다.

또한 4번에 하나님께서는 성장과 성숙에 의한 많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자라기를 원하셨고 많은 과실을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은 적용해보면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돈 대주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식이 시험 성적이 좋아지면. 그 밑에 나오자나요.

썩과 이삭과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오는데 점점 달라지는거죠.

열매 맺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가 된다 라고 말하자나요.

점수로 해보면 간단합니다.

30점, 60점, 100점 그러면 부모님은 100점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수고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기에 더욱 좋아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 Mas buscad primeramente el reino de Dios y su justicia, y todas estas cosas os serán añadidas.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와 관련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 생활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비결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은 채워주신다 라는거죠.

2번째.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의 남녀 라고 되어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강제는 없습니다.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또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데 그 완전히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왕의 군대가 수장당했습니다.

구원받았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한 보호를 받았고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광야에서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정말 건너기 힘든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이는 지나가기 어려운 광야를 쪽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조금 하다보니깐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니깐 실제로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의식주와 관련된 아주 삶에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을 요구하지는 또 않았습시다.

그렇죠. 먹을 것 있으면 다 가져와라. 그런 말 한 것도 아니구요. 옷 입는 것도 다 가져와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몽땅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고 그런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들 자신에게는 내도, 갖다 바쳐도 아무런, 삶의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 예물 받겠다 그래서 그들이 굶어죽었냐, 헐벗었냐, 자지 못했냐, 그러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한 예로요. 우리가 십일조 바치는 것도 그렇습시다.

십일조가 내 삶에 정말 필수적인 부분일까? 그거 없으면 내가 못살까?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십분의 일은 없어도 살 수 있습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부다 주셨다 라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십분의 일을 드리는 것이.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더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고 믿습시다.

십일조 바쳐가지고 굶어죽었다 라는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못 봤습시다.

왜냐면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시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다.

교사들 중에서는 아마 십일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 정말 만약에 혹 그런 부분들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교사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교사라는 직분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에. 2번에 1번. 바친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었죠.

출애굽기 3장 22절 봅니다.

21절, 22절.

21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찌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21 Y yo daré a este pueblo gracia en los ojos de los egipcios, para que cuando salgáis, no vayáis con las manos vacías;

22 sino que pedirá cada mujer a su vecina y a su huéspeda alhajas de plata, alhajas de oro, y vestidos, los cuales pondréis sobre vuestros hijos y vuestras hijas; y despojaréis a Egipto.

12장.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면요.

35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5 E hicieron los hijos de Israel conforme al mandamiento de Moisés, pidiendo de los egipcios alhajas de plata, y de oro, y vestidos.

36 Y Jehová dio gracia al pueblo delante de los egipcios, y les dieron cuanto pedían; así despojaron a los egipcios.

400년 간 노예 생활을 하는데서 그냥 나와도 감사한 거죠? 사실 빈손으로 나와도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지도 않은 것을 얻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다 얻은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바친 예물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생명도, 생명활동의 모든 부산물들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늘 감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데 솔로몬이 짓도록 할 때 준비를 해주면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이니이다

Porque ¿quién soy yo, y quién es mi pueblo, para que pudiésemos ofrecer voluntariamente cosas semejantes? Pues todo es tuyo, y de lo recibido de tu mano te damos.

이렇게 말하자나요. 그래서 거기 2번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하고 연결이 되는데

다 받은 겁니다. 공수레 공수거 아시죠? 여러분 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말씀처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았고 또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주님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면 그 종이 경제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거 다 누구꺼죠? 다 주인 것이자나요. 다 주인 겁니다.

사실 내가 해서 벌어들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 겁니다.

그거 인정하는 의미로 십일조 드리는 거였다는거죠.

생명활동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나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쥘 것 없이 빈손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빈손으로 나와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텐데. 그 모든 것을 가져나오도록 했을까요?

성막 지을려고 그런거죠. 성막.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누리고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기꺼이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바치게 되는 건데.

역대상 29장 한 번 봅니다.

당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드릴 수 있던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11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1 Tuya es, oh Jehová, la magnificencia y el poder, la gloria, la victoria y el honor; porque todas las cosas que están en los cielos y en la tierra son tuyas.

다윗의 신앙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porque todas las cosas que están en los cielos y en la tierra son tuyas.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Tuyo, oh Jehová, es el reino, y tú eres excelso sobre todos.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2 Las riquezas y la gloria proceden de ti, y tú dominas sobre todo; en tu mano
está la fuerza y el poder, y en tu mano el hacer grande y el dar poder a todos.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부귀가 다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귀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
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성막을 만들던 예물을 드렸었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2번에 3번 보시면 다양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떤 여인들은 자기 거울로 쓰고 있는 것들까지도 바쳤습니다. 대단한거죠.

정말 다양한 예물입니다. 이 모든 예물은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었으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성막을 완성시켰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여러 치장물들을 내놓았습니
다.

조각목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금과 함해져서 훌륭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금과 놋은 대조적이며, 해달가죽과 귀한 실도 또한 대조를 이룹니다.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다양한 위치에서 서로 연합하여 훌륭하게 주님의 일을 합
니다.

신약시대의 헌금이나 헌물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
는데 모두 사용되어집니다.

주님은 작은 힘이지만 모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주님과 관련된 예물을 받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겠죠?

작은 일도 그렇고 작은 물질도 역시 그렇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신체에, 한 몸에 여러 지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금 귀하게 쓰여지고 조금 폭넓게 쓰여지는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달려있기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기만 해도 고마운 것들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릇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여러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도 마찬가지로인데 다양한 재물들이 있다 라는 것은 다양한 지체들, 재물들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금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은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조각목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조각목처럼 연약하다면 금 같은 사람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둘은 정말 환상적인 콤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는 늘 피해만 주고 늘 폐만 끼치고 늘 연약해서 내 몸 하나 추스르길 힘들어서 교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 분들은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옆에 딱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지름길인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딱 바라보기에 저 분은 정말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보석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나무와 풀과 짚 같다는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면서 스스로 절망을 느끼고 낙심하기도 하고 비교에 의해

서 나라는 정말 존재가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그런 분들을 특별히 내 곁에 가까이 뒀서 나로 교훈 삼게 하신 것은 내가 그 분과 더욱 연합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내 주위에 그런 열등감을 혹 느끼게 할 만한 강인한 분이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그 분과 더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진다는 게 뭘니까? 그 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더 바짝 붙어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배우다 보면 내가 강해집니다.

마치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에 새끼소가 별로 힘없지만 멍에를 메고 같이 묵묵히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엄마가 다 하는 거지만 그 새끼는 따라가면서 그래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조금 지나보면 그 새끼가 커서 여전히 어머니가 하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중에서도 사실 새끼손가락은 제일 힘이 없습니다. 새끼손가락.

그래도 붙어있어야지 붙어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병신 소리 듣자나요.

그래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명한 다양한 예물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불렀다면 자기 스스로 정말 못 배웠고 가진 것 없고 들은 것 없다, 머리 속에 들은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렀다면 틀림없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막 어딘가에 적은 예물들도 쓰임이 되었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열등한 존재일지라도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반드시 요긴하게 쓰여질 겁니다.

아무리 잘 지어나도요. 끈 하나 없으면 무너집니다. 끈을 묶는 말뚝 하나 없으면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색, 자색, 홍색, 흰 베실로 짠 아름다운 천이 있어도 정말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조각목에 의한 말뚝하나 없다면 그 천이 제대로 위치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모습이든지 혹은 말뚝이 땅에 박혀진 부분들은 보여지지가 않자나요.

그렇게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든지 주님은 다 요긴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반드시 할 것이 있다.

또 내가 어떤 역할이든지 지금 현재 충실하게 그 역할들을 잘 하고 있다 라는 믿음으로 자기 자리르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번에 4번에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자원해서 가져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일과는 자원하는 예물을 아침에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였고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했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역시 아침 일찍 새벽같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루 한 바퀴 도니까, 시간 많으니까 대충 점심밥 먹고 대충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었구요.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가장 처음에 일을 했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한 바퀴 도는 거였다 그러면 아침 일찍 돌고 나머지를 하는 것이지

일을 다 해놓고 나중에 그 일을 했다 라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것을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만사를 거둘 때도 아침 일찍 거뒀죠.

성막에서 향을 사를 때도 아침에 살랐구요.

문을 지키는 문지기도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이른 아침부터 가르치셨고 백성들은 배우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침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하루 삶의 시작은 아침부터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지배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달을, 한 달 지배할 사람이 한 해를.

그 사람이 결국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출발은 아침부터 새벽부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오전 시간을 잘 기억하고 정말 바쁘고 힘든 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오전 시간에 꼭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에도 교회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신약성경의 곳곳에는 사도들 외에 사도들을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개별적인 이름들과 교회들의 헌신된 수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남녀의 구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표현될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시대들 속에서도 복음이 여전히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헌신은 시편 110편 3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은 상태로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즉 삶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헌신은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이 더럽혀지고 망가진 상태에서 무엇인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한 헌신. 그 이후에 즐거운 헌신도 있는 것이다.

먼저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제도를 보여주셨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의 모양을 가르쳐줬고, 또 그 일을 위해 지혜를 주신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셨고, 또한 예물을 바칠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양을 보여진 것도 사람이고 또 그리고 가르치던 사람도 사람이었고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성막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이를 감독하고 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브살렐과 오볼리압 같은 사람은 연구하고 이를 지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일을 맡아서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일 맡은 사람에게 여기 보면 거기 유인물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 3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 4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 5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 1 Habló Jehová a Moisés, diciendo:
- 2 Mira, yo he llamado por nombre a Bezaleel hijo de Uri, hijo de Hur, de la tribu de Judá;
- 3 y lo he llenado del Espíritu de Dios, en sabiduría y en inteligencia, en ciencia y en todo arte,
- 4 para inventar diseños, para trabajar en oro, en plata y en bronce,
- 5 y en artificio de piedras para engastarlas, y en artificio de madera; para trabajar en toda clase de labor.

하나님이 다 주셨죠. 개인에게 일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주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암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찌니

6 Y he aquí que yo he puesto con él a Aholiab hijo de Ahisamac, de la tribu de Dan; y he puesto sabiduría en el ánimo de todo sabio de corazón, para que hagan todo lo que te he mandado;

지혜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구요.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더 연구를 하게 한 겁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된거죠.

더 나아졌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도 괜찮겠다 하고 생각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분은 마음이 준비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또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바쳐서 일하니깐 더 많은 것을 또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있다 라고 생각하자요.

나중에 보면 그것도 사실 없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일을 맡기기 위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합당하게 준비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불렀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고 또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잠들어 있는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틀림없이 부르셨다면 공급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2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되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에 따른 능력의 공급이 있습니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힘 있게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전부 다 주님이 주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는 받을려고 해야 한다 라는거죠.

그래서 중간에 나오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겁

니다.

주시는 것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할려면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받지 않고 일 하는 사람은 잠시 후에 피곤함을 느낄 겁니다.

부족함을 더 많이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을 아는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신세한탄만 하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라는 것만 알지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으려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 않는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나중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시는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라고 그랬자나요. 무능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요 더 구할려고 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더라구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신데. 그게 됩니까?

기도하는데 안 준다고. 기도하면서 찾아야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랬자나요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지 만나자나요.

그러니까 여기 브살렐과 오볼리합이라는 사람이 지혜 있다 그래서 아무 일 안한 거 아니죠.

열심히 연구를 한 겁니다. 공교한 일을 열심히 연구해서 뭐라도 자꾸 깨닫고 알려고 하니깐 주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능력만

믿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데요. 먼저 마음을 주시고 더 자원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열심히 연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은요 이 보는 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 받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막 기록도 해두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묵상을 해봅니다. 기특하죠.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또 알았을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받아서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이거 배워서 남 줘야 되는데 이거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으니깐 더 가르쳐줘야 되겠다.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깐 더 연구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라는 것이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 Todo lo puedo en Cristo que me fortalece.

바울 역시도 능력 주시는 자에 의해서 능력 받는 것이 없었다면 아무 것도 못했을 겁니다.

권능을 받지 않았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못 나가는 겁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신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동된 자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 약을 먹으면 반응을 해야 되죠.

식사할 때에 뭔가 잘 먹었다면 뭔가 나타나야 되자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반사’라고 옛날에 이런 거 장난으로 해본 적 있는데요.

의자에 앉아가지구요. 발을 띄어 놓은 상태에서 무릎 관절 있는데를 탁 치면 발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툭툭 나가잖아요. 무릎을 이렇게 치면은.

그런데 안 나가는 분도 있더라구요. 그거 좀 비정상인 거 같아요.

치면은 나가야 되자나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가야 됩니다.

거울이라면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 자연스럽게 반사되게 나가야되죠.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으면 안 되죠? 닦아야 되자나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닦아서 잘 비추도록 해야 되겠죠.

교회 내에서 주님은 많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 각자의 일을 하듯이, 교회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연구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도 연구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뢰아 사람들도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진리를 반대하는 것들도 잘 분별해야 할 겁니다.

가장 확실한 분별은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일 겁니다.

다른 건 연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본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가 가장 선행되어야 되고 앞서서 더 중요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교사는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자나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연구하지 않으면 그거는 포기한 겁니다. 교사의 길을. 때저는 몸으로 때우면 되요. 교사는 몸으로 때우기 전에 먼저 가르치는 거니까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가르치는 거자나요.

먼저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처럼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그 말씀에 익숙해지고.

설령 내가 열 가지를 준비해서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나는 열 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를 하더라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공부를 하시면 되겠구요.

가르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짐은 서로 지워야 되죠.

그래서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일을 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혼자 있어도 해야 되는데 애들 한 100명 200명 되도 혼자서라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있다 라는 것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일 오후에 학년별로든지 몇몇든지 모여서 교제하는 거 보면은 참 아름다워보여요.

정말 동역하는구나, 협력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요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막의 전체적 개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라는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성막이라는 부분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아주 시시콜콜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성막에 관련되서 다루는 내용이 참 많자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구절인데 성막은 장수로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특별한 겁니다.

기원이 하나님께 있자나요. 인간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45m×22.5m의 건물. 50m 내지 25m 높이로 보기도 합니다.

물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뜰이 있고 뜰 속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막이 있자나요.

성막 그 안에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는데 먼저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가 있는 것이고 성소에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떡을 놓은 상이 있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등대가 있고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난 향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어놓은 속죄소, 시은좌가 있습니다.

피가 뿌려지는 시은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됐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막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두멍과 번제단과 또 각각의 둘러싸여 있는 흰 천들

그리고 네 종류로 덮여져 있는 덮개들 그 안에 있는 향단과 또 떡상과 등대와 지성소 이런 지성소 내에 속죄소, 시은좌, 언약궤 이러한 부분들은 26과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 분만 아니라 그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물을 갖다 바쳤고

그 예물을 갖다바친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녀가 나아왔고 자기 생활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도 내어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고 그것들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혹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성막 짓는데 사용되었다는 것과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꾼들이 필요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특별한 일꾼들이 있고 그 일꾼들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브살렐과 오홀리압만 상급이 큰 것이 아니고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상급을 하나님께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들어나있냐 들어나있지 않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름은 나타나있지 않더라도 정말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예비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 바쳐진 예물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무지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있을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집회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더욱 은혜를 더해주셔서 대집회든지 또 여름성경학교 시간들도 얼마남지 않았습시다.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나온 어린이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